

소아자폐증의 구성주의 철학적 접근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¹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²

홍 성 기^{1,2}

A Constructive Philosophical Approach to the Infantile Autism

Sung-Ki Hong, PhD^{1,2}

¹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Suwon, Korea

²Institute of Mental Health,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June 14, 2012
Revised July 10, 2012
Accepted July 13, 2012

Address for correspondence

Sung-Ki Hong, PhD
University College,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443-749, Korea
Tel +82-31-219-2859
Fax +82-31-219-1620
E-mail ajouphil@ajou.ac.kr

Reconstruction of the infantile process of acquiring a language shows that in order to initially develop the object scheme, children must have an ability to maintain the intensity of their sensory stimulation and their own sense of synaesthesia. Such a somatic condition concedes children to acquire the object scheme from her/his subjective perspective. This becomes likely through the symptomatic relation that is made when children partition the undifferentiated senses as a whole. The next significant step in acquisition of a language is that children should synchronize their own object scheme with that of the existing language community; this sensible phenomenon requires mutual role change and change of perspective by children. In addition, autism research holds a significant meaning not only as a psychiatric study but also as a sound philosophical investigation. In particular, the logical reconstruction of language acquisition is used to be restricted to normal linguistic condition and this attempt only explains half of the entire study of development of language. The logical reconstruction of language acquisition can be faultless only when the linguistic disorder is also philosophically understoo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2;51:367-377

KEY WORDS Autism · Language acquisition · Constructivism.

서 론

인간의 인식행위와 인식대상에 대한 관계는 동서양의 철학에서 항상 문제시되어 왔다. 즉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정신활동이 인식내용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느냐는 논의가 그것이다. 여기서 후자의 흐름을 우리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고 부른다. 특히 언어가 주어진 세계를 단순히 기술한다는 입장에 반하여 구성주의는 인간이 언어의 도움을 빌어 세계를 적극적으로 구획, 분할하며 나아가 존재구성에 개입한다고 본다. 따라서 구성주의 철학은 어떤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려면, 그 존재가 현실적으로 구성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비정상적인 언어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언어도입과정의 재구성과정은 동시에 비정상적인 언어현상이 어떤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3년에 Kanner와 1944년에 Asperger에 의해 소아자폐 증상이 진단, 기술되고 “자폐적(autistic)”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폐아의 특징적 행동을 설명

하려는 적지 않은 수의 이론 혹은 가설이 제안되었다.¹⁻³⁾ 그러나 자폐증의 원인규명이나 자폐현상의 설명이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소아자폐증을 다루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영국의 아동심리학자이며 자폐증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시행한 Baron-Cohen 등⁴⁾이 제시한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이라는 자폐증의 의사소통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기본적으로 이 ‘마음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 마음의 존재는 나의 경우 자기성찰(introspection)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철학에 기초하여 타인의 마음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오로지 자신의 마음의 존재에 대한 유추해석을 통해서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폐아의 경우 타인의 마음을 읽는, 혹은 타인의 마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을 주창하는 심리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자폐아와 대조군에 행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Sally-Anne test’다.⁴⁾ 이 실험의 주안점은 실험 대상의 어린이가 타인의 관점에 섰을 때에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에 있다. 예상한 대로 자폐아의 경우 대부분 이런 실험상황에서 관점 바꾸기를 하지 못한다.

1980년대 중반이후 자폐증이라는 증상을 조금 더 투명하게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마음의 이론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나, 이 이론의 문제점은 놀랍게도 자폐증의 잘 알려진 증상을 이론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즉 자폐증을 진단하기 위한 여러 증상 중에는 사회적, 감정적 상호관계의 결여[lack of social or emotional reciprocity,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이하 DSM IV)]가 있으며, 따라서 타인의 마음의 존재를 알지도 이해하지도 않는다고 보이는 것이 자폐증의 주 증상인 것이다. 다른 한편 Cohen을 비롯한 마음의 이론의 지지자들은 바로 자폐아들이 ‘타인의 마음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이론을 마치 가설처럼 전개하였다. 즉 ‘설명되어야 할 증상’이 그 ‘증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바뀌어, ‘수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것으로 제시’되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 자폐증에 대한 유전적, 뇌신경 생리학적 접근은 특정한 신체적 이상조건과 자폐현상 전체를 연결시키는 것이지 발달장애로서 자폐증의 여러 이상 증세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자폐현상의 설명에 필요한 것은 정상적 인지발달 및 언어발달에 대한 경험적 기술(記述)만이 아니라, 발달과정 전반의 논리적 재구성이라는 점이다. 즉 발달과정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확인하고, 이중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로서 자폐현상을 설명하는 포괄적이고 정합적인 가설제시가 필요하다. Jaspers⁵⁾는 그의 저서 『일반 정신병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대부분은 정신병이 진단될 수 있는 신체적 발병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질병의 개념은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마음의 변화와 결부되어 있다. 물론 많은 경우, 그 증상 전체에 일찍이 인식 가능한 신체적 사건이 근처에 놓여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하는 신체적 현상들이 발견된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는 이마저도 없다. (...) 이와 같은 질병 탐구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의 장애 현상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심적 사건의 “기본 제 기능”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신체적 병적 과정을 발견할 수는 없겠지만 특수한 것, (...) 건강한 것과 대비되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하게 심리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질병 본질에 관한 어떤 것이 - 이론적 개념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Jaspers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자폐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가 불가피하나, 자의적 가설제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째, 최대한 많은 자폐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 인접학문의 성과와 최대한 정합적이어야 한다. 미국의 정신질환분류기준 DSM-IV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아자폐증은 어린이가 1)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질적 장애와, 2) 의사소통에서 질적 장애와 3) 제한적이고 반복적이며 상동적인 행위·관심·활동을 보일 때 진단된다. 이 세 가지 장애 범주가 하나의 원인 혹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원인들을 갖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자폐현상의 논리적 재구성으로서 이 논문은 사물유형이 단순히 실재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호의 도움을 받아 간주관적으로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2)의 의사소통장애 부분을 집중적으로만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습득과정의 논리적 재구성

사물유형의 형성조건으로서 공감각

언어습득과정에는 사물과 함께 언어적 표현 자체의 유형(object scheme) 형성능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언어행위의 전제조건이 인지행위이고 인지행위란 사물을 ‘~로서’ 재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언어란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확보를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는 주변 세계로부터 나름대로의 주관적 사물유형 즉 相(상)을 형성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형성한 相은 기존의 언어공동체의 相과 일치되어야 언어도입과 함께 비로소 의사소통의 수단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사물유형 형성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간주관적 의사소통의 수단 확보는 물론, 인지능력 자체에 문제가 생겨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이상언어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Piaget⁶⁾의 관찰에 의하면 아이는 듣기, 보기, 빨기 등에서 서로 독립적인 유형(scheme)을 발전시키고 생후 약 6개월쯤 되어서야 서로 다른 감각들을 연계시키는, 이른바 감각 간의 이동(cross-modal transfer)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며 조그마한 종처럼 생긴 것’을 노리게 젓꼭지 유형으로 파악했다면, 입에 물고 있는 노리게 젓꼭지의 촉감으로 젓꼭지의 모양을 인지할 수 있다. 이런 관찰은 대상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자적 요소들이 있고, 이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복잡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서양의 원자론적(atomistic)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근자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신생아의 여러 감각 영역들은 미분화상태인 신생아 공감각(neonatal synaesthesia)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Maurer⁷⁾에 의하면 신생아 공감각은 생후 4개월 정도까지 지속되다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신생아 공감각의 해부학적 원인으로서는, 다른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신생아의 신경구조에 일시적인 연결들(transient connections)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Maurer⁷⁾는 자폐증의 이해에도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신생아 행동원칙을 제시하였다: 1)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자극)의 총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려고 하며, 자극이 적정수위를 초과하면 잠이 든다. 2)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의 총량이 적절하고, 그 기원에 관계없이 자극의 유형에 익숙해지면, 신생아는 새로운 유형의 자극을 찾는다.

신생아 공감각은, 다른 포유동물의 경우와 같이, 개념형성의 부재로 추론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생존에 위협적 상황을 회피하고 생존에 우호적 상황에 접근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감각영역이 미분화되어 하나의 감각채널로 들어온 자극이 다른 감각채널이 촉발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의 경우에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생아 공감각의 중요성은 언어도입에 필요한 개념형성의 전제조건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엄마 젖가슴의 푸근한 촉감은 엄마젖의 미각을 느끼게 만들고, 엄마 젖가슴 특유의 냄새는 또한 상응하는 촉감을 유발시키는 상태는 앞에서 말한 징후관계의 원초적 토대라고 파악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근자에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비재현적 인지과학(non-representational cognitive science)에서도 공감각의 의미가 유사하게 해석되고 있다. 즉 Ikegami와 Zlatev⁸⁾는 공감각이 심상(心像)의 형성 이전에 필요한 전(前)재현(pre-representation)의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전재현이란 ‘반성적으로 의식할 수는 없지만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와 경험을 통해 획득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물의 여러 감각적 측면이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여러 감각을 통합하며 행동하는 것과 흡사하다. Ikegami와 Zlatev는 통합감각으로서 공감각이 ‘감각영역의 교차를 통한 내적 의미공간(cross-modal internal meaning space)’에 속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 감각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다른 감각의 정상적 수용을 방해할 뿐더러 수용가능한 자극의 총량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어도입의 초기에 징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이 결여될 수 있다.

징후(symptom)와 상징(symbol)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호를 임의의 규칙에 의해 도입된 구어(口語, verbal language) 및 문어(文語, written language)로

파악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호학의 영역에는 자연현상도 포함된다(예: 먹구름과 소나기). 이때 기호란 항상 ‘...을 위한 기호(sign for)’이며 기호관계의 관계항(relata)을 의미한다. 만일 기호관계에 놓여 있는 A와 B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양자를 ‘징후’라고 부른다. 여기서 ‘징후’와 아래에서 언급할 ‘상징’에 대한 개념규정은 Peirce⁹⁾의 작업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글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이다. 또 의학용어로서 ‘symptom’은 ‘증상’으로 번역되지만 징후는 증상보다 더 넓은 일반적 개념이다. 중요한 점은 징후 A와 B가 사실상 하나의 전체를 인식주체가 분할하였을 때 비로소 생성되는 부분이라고 파악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고통-고통의 표현’이 하나의 전체였으나 우리가 양자를 의식적으로 나누었을 때 고통과 고통의 표현 간의 징후관계가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고통의 표현을 수반할 때 한해서 고통이고, 고통의 표현은 고통으로부터 나왔을 때 한해서 고통의 표현’이다. 이런 징후관계는 대칭성을 지녀서 A와 B는 항상 순환적 정의를 피할 수 없다. Peirce는 ‘바람의 방향’과 ‘풍향뿔(Weather Hahn)’이 가리키는 방향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징후관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징후관계로 보면,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한에서 어떤 물건은 풍향뿔이고, 풍향뿔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바람의 방향이다.¹⁰⁾ 요약하면 징후관계는 한 사건을 분할하였을 때 생기므로 상호의존적이고 필연성을 갖고 있으나 순환적 정의로 인해 징후의 동일성(Identity)은 확실히 고정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두 사물 유형 A와 B의 동일성이 이미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어 도입된 후, 임의의 규칙을 통해 A가 B를 지칭하는 기호관계를 맺는 경우 우리는 A를 B에 대한 ‘상징’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사과’와 영어의 ‘apple’을 임의적 관습(규약)에 의해서 사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소아언어장애에서 언어이해에 대한 대부분의 접근은 상징의 단계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어를 상징단계에서 파악하는 접근 방법의 문제점은 관습도입 이전에 이미 ‘사과’라는 언어적 표현과 사과라는 사물 유형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아이가 처음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 이런 간주관적 사물유형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상징은 언어와 사물의 유형이 확보된 이후 임의의 규칙에 의한 조합(configuration)행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부치는 명명(naming)이 이런 조합행위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린이가 언어를 처음 배우는 과정은 징후관계의 형성에서 시작하여 상징관계의 도입으로 발전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약하면 상징관계는 서로 무관한 독

립적인 대상들을 조합하여 하나를 기호로, 다른 하나를 지칭 대상으로 간주하는 규칙(관습)을 도입하였을 때 생기므로 필연성이 없다.

앞에서 언급한 미분화된 감각영역들이 분화되는 계기는, 아기가 늘 경험하던 감각의 세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단절을 경험하였을 때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젖가슴의 촉감이나 냄새를 맡았으나 젖을 빨지 못했을 경우, 마치 움직이는 물체가 급히 정지하였을 때 비로소 관성을 느끼듯, 젖물림에 대한 요구를 느끼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원래 하나의 분할되지 않은 전체인 ‘엄마의 젖가슴-젖물림-포만감’이 나뉘지는 것이다. 이때 어린이는 ‘엄마의 젖가슴의 촉감(냄새)’이 익숙하게 체험하였던 전체감각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젖물림+포만감’을 가져오는 징후라고 파악할 수 있다. 또 ‘젖물림과 포만감’은 ‘엄마의 젖가슴의 촉감(냄새)’으로부터 이어지는 무엇으로 파악된다. 즉 어린이는 ‘엄마의 젖가슴-젖물림-포만감’이라는 전체를 분할하여 상호의존적인 징후관계를 형성하였다. 상호의존적인 징후관계의 특징은 관계항의 범위를 넓히거나 변화시킴으로써 징후의 성격을 축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예를 들어 아기는 엄마의 젖가슴과 우유병이 주는 촉감과 냄새가 젖물림과 포만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때 어린이가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떡갈나무의 잎과 소나무의 잎을 모두 나뭇잎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떨렁하다’는 말의 원뜻은 원래 ‘약간 춥다+비어 있다’의 뜻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상황에 사용된다. 이 새로운 용법이 상황의 어떤 측면을 기술하는지는 ‘떨렁하다’의 예전 사용법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다. 중요한 점은 징후관계를 통해 서로 다른 개별적 사물들을 동일한 사물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언어습득의 관건인 개념형성 능력이며 동시에 언어의 유연한 사용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설정된 징후관계에서 어린이가 파악하는 사물유형이 우리가 파악하는 사물유형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만일 선생이 노란색의 물건을 가리키면 어린이가 ‘노랑’이라는 말을 하고, ‘노랑’이라는 선생의 말에 아이가 노란색의 물건을 가리키는 등 아이가 이들 간에 그 어떤 기호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여도 아직 그 기호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처럼 ‘노랑’과 노란색 물건 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¹¹⁾ 어린이는 우리와는 다른 사물의 측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가능성은 어린이가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고 하여도 결코 원칙적으로 배

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이가 징후관계를 통해 형성한 사물유형이 어른의 세계의 사물유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관점 바꾸기(perspective change)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 관점 바꾸기는 여러 다양한 개별적 사물을 동일한 사물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에 이미 그 단초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즉 사물유형의 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점을 바꾸는 능력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상화(Abstraction), 상(相), 메타퍼

개별 사물의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는 행위를 철학자들은 ‘추상화’라고 부른다. 즉 추상화란 여러 개의 대상에서 특정한 속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추상적 존재(abstract entity)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집합추상(class abstraction)이 있다. 이런 추상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2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추상적 존재를 지칭한다. 우리는 흔히 언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에게 여러 개의 사과를 보여주면 아이가 그 공통점을 귀납적으로 파악하여 ‘사과’라는 단어의 뜻 혹은 개념을 형성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시적 정의(ostensive definition)가 모호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빨간 사과를 가리키며 ‘빨강’이라는 말을 하여도 어린이가 사과의 어떤 측면(색, 형태, 질감 등)을 보아야하는 지는 전혀 일의적(一義的)으로 지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언어습득의 시작에는 대상(object)의 속성(property) 자체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하여 사물의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엄마의 품은 ‘따뜻함과 푸근함과 독특한 체취와 때로는 배부름’의 여러 측면으로 분할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인지된다. 따라서 어린이는 주변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물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또 개념형성을 시도하지만 이런 인지과정은 결코 추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추상화만을 통하여 형성된 개념은 그 사용이 기계번역의 결과처럼 문맥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극히 유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된 사물유형, 즉 상(相)은 어떠한 모습일까? 이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의 하나인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사물유형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준다.¹²⁾ 그에 의하면 모든 놀이(game)에 공통된 속성은 없으며, 단지 이 놀이와 저 놀이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유사함, 즉 가족 유사성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물유형 A에 속하는 모든 구체적 사물들의

공통점은 ‘A라고 칭한다’는 것뿐이며, 이 점은 언어가 사물의 유형을 구성하는 적극적 기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사물의 유형을 구성하는 언어현상 중의 하나가 메타퍼(meta-*phor*)라고 할 수 있다. 즉 메타퍼를 통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대상의 새로운 측면이 생성된다. 예를 들어 음양론(陰陽論)을 설명할 때 음에 속하는 것들, 양에 속하는 것들의 사례를 열거한다. 음에는 여성, 아래, 정적, 차가움, 달, 뒤 등등이 속하는 데, 도대체 여성과 차가움이 반드시 공통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마디로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이란 없다. 즉 ‘음’이라는 메타퍼와 열거된 사물들과 충돌하여 징후관계를 맺어 ‘음성(陰性)’이 비로소 생성된 것이다. 이 점은 고대 중국에서 원래 여성은 음이 아니라 양에 속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징후관계의 관계항 변화를 통해, 여성에게서 새로운 양의 측면을 생성시켰으며, 동시에 이 점은 관점 바꾸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유한한 언어로 사실상 무한히 다양한 변화와 사물들을 포섭, 구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행위에 끊임 없이 크고 작은 관점 바꾸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점은 경직된 자폐아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정상적인 언어는 설사 감지하지 못할 정도라도 항상 메타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종류의 인지행위

다른 한편 사물을 언어로 기술하거나 설명, 혹은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우리는 개념을 대상의 여러 측면들의 논리적 연산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약간의 논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코끼리’라는 표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코끼리=df (긴 코 & 거대한 몸통 & 기둥 같은 다리 & 긴 송곳니 & 냄새) ∨ (긴 코 & 거대한 몸통 & 기둥 같은 다리 & 부러진 송곳니 & 우는 소리) ∨ (긴 코 & 작은 몸통 & 젓을 먹음) ∨ 등 (& : 그리고, ∨ : 혹은). 아마도 우리는 여러 상황에 놓인 코끼리들(맘모스,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 풀 뜯는 코끼리, 일하는 코끼리, 어른 코끼리, 아기 코끼리, 죽은 코끼리 등)을 얼마든지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사진과 카드, 심지어는 만화나 장신구, 컴퓨터 아이콘의 코끼리까지 포함시키면 ‘코끼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다양한 사물에 사용되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길게 코끼리를 묘사하더라도 결코 완벽한 ‘코끼리’의 개념도,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한 코끼리의 개념도 얻을 수 없다.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언어사용자에게 개념이란 우리가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적 그림(mental representation)도, 논리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한된 어휘로

사실상 무한히 변화하는 상황을 구별, 구획하려면 개념의 유연성은 비교행위가 없는 즉각적인 언어사용의 필수적 조건이다. 즉 우리의 언어행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인지행위와 연결된다. 하나는 즉각적인 인지행위, 다른 하나는 사물을 이미 알고 있는 특징들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인지행위가 그것이다.

현대 독일의 구성주의 철학자 Lorenz는 두 가지 유형의 인지행위에 상응하는 개념들을 도입하였다.¹³⁾ 즉 발화상황(speech situation)과 독립된 능력인 ‘대상기술력(對象記述力, meta-competence)’과 발화상황과 연계된 능력인 ‘대상설정력(對象設定力, object-competence)’은 각각 지각과 인식 간에 비교과정이 존재하는 인지와 그렇지 않은 즉각적인 인지행위에 상응하는 개념들이다.¹⁴⁾ 동시에 이 개념 쌍들은 또한 비트겐슈타인의 ‘보고(report)’와 ‘외침(exclaim)’이라는 두 종류의 언어행위에 대응한다 :

나는 한 동물을 보고 있다 ;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너 무엇을 보고 있니?” 나는 대답 한다 : “토끼.” -나는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 ; 별안간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간다. 나는 “토끼!”하고 외친다. 이 보고와 외침은 모두 시각체험의 표현이다. 그러나 외침은 보고와는 다른 뜻에서 그러하다. 외침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것은 비명이 고통에 대해서 갖는 관계와 비슷한 관계를 시각체험에 대해서 갖고 있다.¹²⁾

시간을 갖고 눈앞에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보고의 경우, 행위자는 토끼의 여러 가지 특징을, 예를 들어 ‘쫓긋 선 귀’, ‘빨간 눈’ 등등을 살펴본 후에 이러한 특징을 갖는 동물의 이름 ‘토끼’로써 그의 시각체험을 기술한 것이며 이때 행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대상기술력의 한 예). 반면 외침의 경우, 행위자는 별안간 지나가는 토끼의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할 시간적 여유 없이 즉각적으로 ‘토끼!’라는 표현을 토해내었다. 이때 행위자의 시각체험은 인지내용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는 ‘토끼!’라는 외침을 갖고 시각체험을 한 것이다.

앞의 언어도입과정의 논리적 재구성을 요약하면, 1) 유연한 개념의 형성을 위해서는 신생아 감각각과 같은 미분화된 감각영역이 필요하며, 2) 어린이는 미분화된 감각영역을 분할하여 징후관계를 형성하고 계속 그 관계항을 확장, 변화시킴으로써 주관적인 사물유형을 형성하며, 3) 관점 바꾸기를 통하여 이미 존재하는 언어공동체가 형성한 사물유형과의 간주관적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와 3)의 차이는 축차적 사물유형의 형성, 즉 주관적 관점 바꾸기에서 간주관적 관점 바꾸기뿐이지만, 유연한 관점 바꾸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심각한 인지장애 및 언어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폐증 언어현상의 재구성

Kanner¹⁾는 4살 반 되는 자폐아의 사례를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어머니의 입을 빌어 기술하고 있다.

한 살 반이었을 때, 그는 18개의 교향곡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1악장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베토벤’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나이에 아이는 몇 시간 동안 인형, 혹은 병이나 주전자의 뚜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 그는 제가 방에 들어가도 저에게 시선을 돌리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아이가 떨어져 있다는 것, 그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치 그들 속에 있는 것처럼, 타인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 애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던 때가 있었지요 ;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대화란 그에게 말해진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 뿐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2인칭으로 부르고, 지금은 때때로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는 ‘그가 원해’라고 하지 결코 ‘나는 원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폐아의 경우 촉각, 후각 등 특정한 감각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혹은 청각장애를 의심할 만큼 큰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지만 청각 자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감각통합의 장애를 기술하는 수많은 보고가 있다. 또 특정한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경우 그 감각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다른 감각의 정상적 수용을 방해할 뿐더러 수용가능한 자극의 범주를 넘어서 수 있다. 만일 앞에서 인용한 Maurer⁷⁾가 제안한 신생아의 행동원칙 2가지가 자폐아의 경우 충족되지 않고, 나아가 이 점이 안정적인 신생아 공감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자폐아는 징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최초의 전제조건을 잃어버리게 된다.

나의 감각지각은 흐트러져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눈치 채지 못하는 광경,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촉감이 나에게서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만 하는 주변의 환경이 종종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혹은 당신에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간단한 나

들이조차도 나에게서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 나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없어 메스꺼움을 느낍니다.¹⁵⁾

특히 정상적이라면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의 경우- 예를 들어 껌안기나 신체접촉- 자폐아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함과 함께 상대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관점 바꾸기의 단초 형성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자폐증 진단규범에도 나와 있듯이 자폐아는 여러 감각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상유형을 형성하기 보다는 대상의 감각적, 부분적 측면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미국의 한 여성의 회고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는 다른 사람이라면 빗이라고 부를 물건을 납작하고, 이(齒)에 문질러서 때때로 아주 세밀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단단한 형태로 지각하였다. 나는 그것을 기능적 목적이 아니라 감각적인 측면에서 지각하였다. 그것은 나의 이빨에 문지르면 ‘리-리’ 소리가 나는 악기였다. 나는 그 당시, 적어도 시간의 상당 부분을, 감각의 세계에서 살았었다.¹⁶⁾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자는 대상 전체가 아니라 대상의 감각적이고 부분적 측면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폐아가 대상전체(gestalt)가 아니라 대상의 부분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지각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작은 ‘O’자로 그려진 커다란 ‘C’자를 정상아와 자폐아에게 보여주었을 때, 정상아는 그 형태를 ‘C’자로 보지만, 자폐아는 ‘O’자로 보는 경우가 많다.¹⁷⁾ 또 복잡한 형태의 대상을 그릴 때에도 정상적인 드로잉이라면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그려 들어가지만, 자폐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세부묘사에서 시작한다는 점도 확인이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자폐아가 사람의 얼굴을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얼굴의 특정부분을 통해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¹⁸⁾ 또 전체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능력이 정상아보다 뛰어나다는 점도 알려졌다.¹⁹⁾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폐아는 감각영역, 감각통합능력, 그리고 감각의 조절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 즉 사물유형 및 개념 형성을 위해 필요한 미분화된 혹은 통합된 감각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물유형형성의 가장 밑바닥 토대에 문제가 있으니 언어발달이 정상의 경우로부터 심하게 일탈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습득의 실패는 단순히 의사소통수단의 결여라는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사물을 구획·분류하고, 이 분류된 사물들 간

에 연관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주변세계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아의 경우 자신의 관점을 바꾸거나 포기하면서도 간주관적으로 언어습득을 하는 것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사회의 축적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폐아는 이 축적된 지식에로의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주변세계의 이해를 혼자 힘으로 시작하여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주변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상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발달과정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 발달과정이 자폐아의 특징적 언어행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를 유한한 언어의 도움을 빌어 유형화하고 고정시키는 데에 실패할 경우, 강물이 흐르듯 변화하는 세계는 어린이에게 기이하며 이해하기 힘든 낯선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이처럼 낯선 환경을 수동적으로 기피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 자체를 고정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폐아가 병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흐르는 세계를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언어습득에도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의 언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폐아는 그 언어가 도입된 상황 전체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고정시켜 가변성이 있는 정상적인 징후관계와는 달리 관점 바꾸기가 주관적으로나 간주관적으로 결핍된 고착적인 징후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언어는 하나의 상황 전체와 완전히 밀착되어 ‘언어-상황’이라는 그림으로 나타난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자폐아가 개념 형성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그림을 축차적으로 합친 것도 혹은 언어의 유연한 사용도 아니고, 그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그림)들의 기계적 모음으로 이루어져 정상적인 사물 유형을 대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생각은 비디오와 흡사한 구체적 이미지들로부터 일반화(generalization)와 개념들로 나아간다. 예를 들어, 개에 대한 나의 개념은 분리불가능할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개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개의 사진이 있는 카드 도록을 갖는 것과 흡사하다. 내가 좀 더 많은 사례를 나의 비디오 도서관에 추가할수록 이 도록은 커진다.²⁰⁾

따라서 일반명사처럼 사물과 연계될 수 있는 단어는 고착된 그림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동사나 형용사에 부가되어 행위나 속성의 양상을 의미하는 부사(副詞)의 경우, 또 전치사(前置詞), 관사(冠詞)처럼 구체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지 않는 표현의 경우에 자폐아는 그 이해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나에게 ‘위에’와 ‘아래에’라는 공간 단어들은 이들의 의미를 나의 기억 속에 고정시키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를 갖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지금까지도 나는 ‘아래에’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 공습경보대피 훈련시에 카페테리아의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림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²⁰⁾

또한 자폐아들은 관계에 대한 표현을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간적 관계조차도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그림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항에 의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희가 철수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문장에 상응하는 사진에서, 만일 자폐아가 오로지 영희와 철수만을 본다면 관계는 그 어떤 구체적인 대상과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폐아들이 ‘사회적, 정서적 상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능하다. 이처럼 그림으로 생각하는 자폐아의 경우 어떤 전체 그림을 나름대로 분할하였을 경우 우리는 ‘자폐아가 비정상적으로 연상작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폐아가 ‘개와 함께 외출하는 장면’을 고착하였을 경우, 그가 외출하고 싶을 경우 ‘개’라고 말할 수도 있다.

찰스 하트는 아들과 형제의 자폐증에 대한 그의 책 『Without Reason』에서 아들의 사고방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였다: “테드의 사고과정은 논리적이지 않거나, 연상적이다.” 이것은 테드의 진술 “나는 비행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행기들이 그렇게 높이 나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테드는 ‘비행기가 높이 난다’는 사실과 ‘그가 비행기 높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하였다.²⁰⁾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하였다”는 Grandin의 해석과는 달리 테드는 높이 나는 비행기를 보고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상황을 하나의 그림으로 고정시키고, 추후에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사건을 분할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테드는 건조기가 고장이 났는데도 젖은 빨래를 옷장의 선반에 올려놓았다. 그가 배운 빨래하기에 따라 테드는 기계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²⁰⁾

‘빨래’와 연결된 상황, 즉 빨래하는 법은 임기응변의 여지가 없이 고착되어 자폐증 환자의 행동을 다시 고착시키고 있다. 전체 상황의 고착현상은 자폐아가 사용된 언어와 어떤 상황이 연계되는지 모르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자폐아의 반향어(echolalia) 현상이다. 이 때 자폐아는 문장 전체를 구성된 단어들의 조합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지 않은 ‘전체’로 반복한다. 예를 들어 대화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 자폐아는 상대방의 말이 지금 그가 처한 상황 전체 혹은 어느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고 믿고 그냥 그 말을 반복한다.

나는 맥락이나 내가 사용하는 용어를 반드시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단지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반향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²¹⁾

그러나 자폐아는 상대방의 말을 그 자리에서 반복하는 것 뿐 아니라, 비디오나 책의 구절을 반복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의 그 어떤 부분이 -자폐아의 내적, 감정을 포함하여- 반향어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고, 바로 그 상황이 반향어 상황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폐아들이 인칭대명사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화자에 따라서 ‘나’라는 표현은 지칭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자폐아가 관점 바꾸기에서 어려움을 갖는 경우, 인칭대명사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폐아는 인칭대명사보다는 고유명사의 사용을 선호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이름을 부르거나, 인칭대명사를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현상 역시 자폐아가 ‘이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미로,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유연성 부재의 연장선상에서 자폐아가 메타퍼나 유머 그리고 역양의 변화에 의한 의미의 변화에 대하여 큰 어려움을 갖는 이유도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메타퍼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상대방이 도입한 새로운 관점에 공감해야 하지만, 이 관점에 청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비유는 이미 존재하는 상황의 기술이 아니며 메타퍼를 통해 새로운 상황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유머는 때때로 메타퍼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한다. 즉 언어의 새로운 사용인 점은 메타퍼와 흡사하지만, 유머의 경우에는 유머가 사용된 문맥이나 발화 상황의 맥락을 순간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한다. 특히 지적 유머의 경우에는 공통의 배경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기계적이고 고착된 언어이해만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다. 역양의 변화는 앞의 메타퍼와 유머의 상황이 불려일으키는 어려움에 추가하여, 특정한 역양으로 변형된 표현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당신이 방 저 건너편에 나를 부른다면, 내가 듣는 것은 이렇습니다: “*&%\$#@, 빌리. #\$\$^*&%\$&*” 그 대신 나에게 와서 직접 평범한 단어로 말해 주십시오: “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아라, 빌리.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다.”²¹⁾

자폐아의 시각적 사고방식과 기억

문자 자체나 문자를 기록할 매체가 없었던 시절에 문헌 전달은 암송에 의존하였다. 고대인간의 암송능력과 기억력은 현대인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고 한다. 인도의 힌두교의 고전 『우파니샤드(Upaniṣad)』는 약 200종이 있는 데 모두 구전으로 전해졌었다. 여기서 언어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정상아와 그렇지 못한 자폐아 간에 기억에 대한 필요성, 기억방식과 기억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분명하다. 언어의 의미를 이미지와 연결시켜야 하는 자폐아의 경우, 만일 충분한 소질과 관심이 있다면 그림 전체를 순식간에 정확히 기억해야 할 필요성은 정상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필요성이 믿기 어려운 기억능력을 개발하였을 수도 있다. 이른바 자폐증 학자(autistic savant)가 이 들이며 약 10%의 자폐아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그림 1).²²⁾

나의 상상력은 마치 영화 <쥬라기 공원>의 디노사우어를 만들어낸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처럼 작동한다. (...) 나는 이 영상을 어떤 각도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나를 기계 위에 혹은 아래에 놓고 동시에 기계를 회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나는 3차원 디자인 시물레이션을 위해서 멋진 그래픽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없다. 나는 그것을 나의 머릿속에서 더 잘, 더 빨리 할 수 있다.²⁰⁾

일부 자폐아는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사진을 찍듯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음은 물론, 그림의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일종의 ‘Zoom-In’과 ‘Zoom-Out’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고 추측된다. 복잡한 열차시각표를 한 번 보고 ‘부산행 열차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퍼즐게임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방식에도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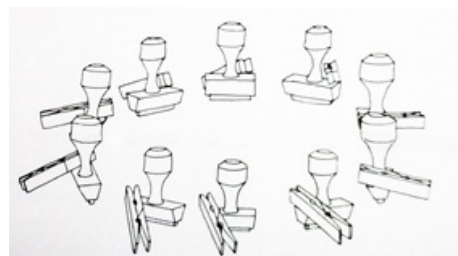


Fig. 1. An autistic person was presented with two objects and asked “Turn around them in your head, and draw them.”



Fig. 2. Eiffel Tower, Drawing by an autistic child.

그림 2는 Stephen Wiltshire라는 자폐아가 에펠탑을 볼과 몇 분 동안 본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린 것이다.²²⁾ Stephen의 다른 건물 그림도 그 세부사항이 실제건물과 거의 일치한다. 이런 능력은 전체의 윤곽뿐 아니라 세부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특정한 날짜의 요일을 순식간에 맞추는 능력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 달력은 평년과 윤년 각 7종류씩 14종만이 존재하며, 28년마다 동일한 달력패턴이 반복된다. 달력계산에 관심이 있는 자폐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어느 해에 어떤 달력이 해당되는지를 그림으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달력의 월력으로 빠르게 시각을 바꾸면서 날짜와 요일을 읽어낸다고 보인다.

우리는 DG(실험주체인 자폐아, 역주)의 능력이 달력의 구조를, 아마도 시각적 영상의 의존하여 기억하는 데에 있다고 추측한다. 달력의 공간적 디자인은 매달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두드러져서 아마도 기억하기에 더 쉬웠을 것이다. 특정한 날짜를 기억하기 위해서, DG는 우선 그 해에 해당하는 달력의 달을 기억에서 불러들인다. 두드러진 형태에 끌리게 되면(즉 달의 첫날과 마지막 날) 그는 이 날짜들을 그 달의 중간에 있는 날짜보다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또 이 두 날짜로부터 계산을 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예를 들어 거리가 더 멀어지면 오류가 증가한다든지), 대신에 우리는 DG가 답을 '읽기' 위하여 달력의 시각이미지를 스캔한다고 제안한다.²³⁾

일부 자폐아가 전체와 부분을 시각을 바꾸면서(zooming)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은, 뛰어난 드로잉 실력을 갖고 있는 자폐아의 그림에 '원근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같은 포레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원근법을 3살짜리 자폐아가 사용한 경우가 보고되었다. 또 Mottron 등²⁴⁾의 연구에 의하면 자폐증 환자의 그림에 사용되는 원근법은 소실점이 한 개 존재하는 원근법이 아니라 소실점이 없는 원근법이다. 저자들은 소실점이 없는 원근법의 사용을 자폐증 환자에게는 계층적 인지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정상인들이 전체의 윤곽에 집중할 경우 세부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나, 자폐증 환자에게는 전체의 윤곽과 세부사항의 인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극도로 정확한 세부사항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자폐증 환자가 기억 속에서 그림의 전체와 부분을 빠르게 오고가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고 찰

인식행위에서 주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인식내용의 객관성 혹은 간주관성의 확보를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는 현상학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현상학적 방법론은 정신병리현상을 환자의 시점(視點)에서 정신현상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공감'을 통하여 간주관적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²⁵⁾ 다른 한편 구성주의가 요구하는 '대상의 현실적 구성가능성'은 주관적 인식행위에서 간주관적 인식행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어와 대화의 역할을 강조한다. 때로는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라고도 불리고, Lorenz에 의해서는 '대화구성주의(dialogic constructivism)'라고 불리는 이러한 입장은 정신병리적 언어현상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식행위의 주관적 부분과 간주관적 부분에 요구되는 신체적·사회적 조건들을 제시하여 이 중 어느 부분이 결여될 경우 정신병리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이려고 시도한다. 여기서 인지행위의 발생 조건에 대한 구성주의적 통찰은 현상의 '설명'과 '예측'이라는 과학의 두 주요 역할과 일치한다. 그러나 정상 혹은 비정상적인 정신현상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그 방법론적 기초가 논리적 재구성인 반면에, 신체정신의학의 기초는 인과관계에 있다. 이점은 현상학적 정신병리학이 "정신(현상학)-뇌(생물학) 양쪽에서 각각 찾아낸 특정 요인들이 서로 안정적으로 대응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지시적 상동성(indicative isomorphism)"²⁵⁾을 찾아내어 궁극적으로는 양자의 대응관계를 인과관계로 이해함으로써(뇌 : 원인, 정신현상 : 결과)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하

려는 시도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대화적 구성주의는 앞의 지시적 상동성을 추구 하더라도 결코 정신현상을 한 개인의 뇌나 개인의 정신 내부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같이 고려 하기 때문이다.

결 론

자폐아는 언어습득의 여러 단계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정도는 개인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정상아의 경우에도 개인마다 인지, 언어, 기억 등 여러 능력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폐증의 경우 그 정도와 양상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1) 감각이상 혹은 감각통합 장애의 정도, 2) 시각적 사고(visual thinking) 및 영상을 통한 기억 능력의 발달 정도(사물유형이나 개념형성을 Grandin의 경우처럼 시물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3) 관점 바꾸기 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자폐증의 결정요인의 여러 가지 질적, 양적 조합 가능성을 통하여 고기능 자폐증(high functioning autism)이나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정신의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자폐증의 인지,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가 철학과 인지과학에 대하여 갖는 함축은 대단히 다양하고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지행위의 본질적 특징을 외부세계에 대한 심적 재현(mental representation)이라고 보지만, 사물유형의 형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반드시 특정한 그림과 연관될 경우, 자폐증 연구에서 확인되듯이, 유연성, 순발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비재현적(non-representational) 인지능력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⁸⁾ 다른 한편 철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언어도입과정에 대한 논리적 재구성이 오로지 정상적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시도는 사실상 반쪽에 불과하였다. 비정상적 언어 상황 역시 설명할 수 있어야 언어도입과정에 대한 논리적 재구성의 설득력이 배가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습득과정의 재구성은 구성주의철학의 의미와 정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가 자폐증 환자가 갖는 간주관적 세계에 대한 빈곤한 경험에 독특한 통찰을 제공 하는 것처럼, 자폐증은 언어 자체의 기원과 본질에 빛을 던져 줄 것임에 틀림없다”는 Hobson²⁶⁾의 통찰은 분명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중심 단어 : 자폐증 · 언어획득 · 구성주의.

Acknowledgments

위 연구는 2010학년도 아주대학교 정착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has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Kanner L. Autistic Disturbance of Affective Contact. *Nervous Child* 1943;217-250.
- 2) Asperger H. Die ‘aunstisehen Psychopathen’ im Kindesalter. *Archiv für Psychiatrie und Nervenkrankheiten* 1944;117:76-136.
- 3) Dzikowski S, Vogel C. Störungen der sensorischen Integration bei autistischen Kindern. Weinheim: Deutscher Studien Verlag;1993. p.12-17.
- 4) Baron-Cohen S, Leslie AM, Frith U.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1985;21:37-46.
- 5) Jaspers K. *Allgemeine Psychopathologie*. 7th ed. Berlin, Germany: Springer;1959.
- 6) Piaget J, Cook M.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 Press;1952. p.263-357.
- 7) Maurer D. Neonatal Synaesthesia: Implications for the Processing of Speech and Faces. In: Baron-Cohen S, Harrison JE, editors. *Synaesthesia: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Oxford: Blackwell;1997. p.224-242.
- 8) Ikegami T, Zlatev J. From pre-representational cognition to language. In: Ziemke T, Zlatev J, Frank R, editors. *Body, Language and Mind, Embodiment*, vol. 1. Berlin: Mouton de Gruyter;2007. p.197-240.
- 9) Peirce CS, Welby LV. *Semiotics and Significs: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1977.
- 10) Scherer BM. *Prolegomena zu einer einheitlichen Zeichentheorie: Ch.S. Peirces Einbettung der Semiotik in die Pragmatik*. Tübingen: Stauffenburg Verlag;1984.
- 11) Hong SK. *Pratitysamutpāda bei Nāgārjuna*. Saarbrücken: Dissertation, Universität der Saarlandes;1993. p.124-154.
- 12) Wittgenstein L.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2006. p.349.
- 13) Hong SK. *Buddhism and Analytic Philosophy*. Seoul: WooRi;2006. p.74-77.
- 14) Lorenz K. *Dialogischer Konstruktivismus* In: Salamun K, editor. *Was ist Philosophie?* Tübingen: Mohr;1986.
- 15) Notbohm, E. Ten Things Every Child with Autism Wishes You Knew, Wrongplanet.net, The Online Resource and Community for Autism and Asperger's [updated 2011 Feb 22; cited 2012 Jan 7]. Available from <http://www.wrongplanet.net/article178.html>
- 16) Williams D. *Autism and Sensing*.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td;1998.
- 17) Motttron L, Belleville S. A study of perceptual analysis in a high-level autistic subject with exceptional graphic abilities. *Brain Cogn* 1993; 23:279-309.
- 18) Boucher J, Lewis V. Unfamiliar face recognition in relatively able autistic children.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92;33:843-859.
- 19) Shah A, Frith U. Why do autistic individuals show superior performance on the block design task? *J Child Psychol Psychiatry* 1993;34: 1351-1364.
- 20) Grandin T. *Thinking in Pictures: Autism and Visual Thought*. New York: Vintage Books;1996.
- 21) Stokes S. Increasing Expressive Skills for Verbal Children with Autism, Special Education Services[cited 2012 Jan 8]. Available from <http://cesa7autism.org/autism/verbal/verbal11.html>
- 22) Baron-Cohen S, Bolton P. *Autism: the Facts*. Onford: Oxford Univ. Press;1993. p.57.
- 23) Kennedy DP, Squire LR. An analysis of calendar performance in two autistic calendar savants. *Learn Mem* 2007;14:533-538.

- 24) Mottron L, Belleville S. Perspective production in a savant autistic draughtsman. Psychol Med 1995;25:639-648.
- 25) Paek MJ, Kang UG. Phenomenological psychopatholog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1;50:97-115.
- 26) Hobson P. The semantics of autism. In: Sims A, editor. Speech and Language Disorders in Psychiatry. London: Gaskell;1995. p.174-182